

# 진안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상반기 전기·수도 사용량 5%이상 감축 1678세대 대상

진안군은 1일 2016년 상반기 기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1,678세대에 2,300만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산정하며, 이번 인센티브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에너지 항목(전기, 수도)별로 과거 2년간 상반기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율이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탄소포인트를 부여하

여 현금, 그린카드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 상반기 각 세대별 전기, 수도 사용량을 줄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진안군 전세대의 약 36%인 4,6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고, 가입 세대의 36%인 1,678세대가 전기 등의 에너지를 5%이상 절약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비산업부문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실

천 운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지급대상자 중 기부를 희망한 세대의 인센티브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인 여름엔 26°C 이상, 겨울엔 20°C 이하 유지하기,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기, 걸기·차전거 타기·대중교통이용을 실천하기, 장바구니 애용하기, 친환경상품 구매하기, 샤워시간 줄이고 빨래 모아서 하기, 음식은 적당하고 늦길 만큼만 조리하기 등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박성일 완주군수,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통투어'

### 생활 속 애로사항 청취

'소통 전도사' 박성일 완주군수가 지난 1일 이서 원금평 경로당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소통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소통 투어는 매번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연스런 소통을 추구하는 박성일 군수의 스타일답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친근 감있고 밀접한 소통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통투어 전 수지침 교육을 받은 박 군수는 수지침과 국화향 나눔 봉사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군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생활 속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귀담아듣는 등 '들어주고, 화답하는' 시간을 통해 열린 소통을 실천했다.

또한 귀반사, 네일아트 등의 자원봉사 서비스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빨래방 등을 연계해 실시했다.

아울러 기회와 시간이 마땅치 않아

닿지 않았던 '군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가려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성일 군수는 "주민들과 가까이서 밀접하게 만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13개 읍면의 마을을 직접 찾아 만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소통을 펼치며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으뜸 도시 완주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 적상 괴목마을 어르신 문화학교 개강

### 매주 월·수·금 마을회관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군 적상면 괴목마을 문화학교가 지난달 30일 첫 수업을 마쳤다. 이날 출석한 학생들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내년 3월까지 매주 월·수·금요일(14:00~17:00)마을회관에 모여 한글과 산술, 미술, 노래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괴목마을 문화학교는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주민들이 학생이 되는 공동체 학교로,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겨울철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에 물론여가 선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을 내 문화학교 개설을 처음 제안한 박운선 위원장(52세)은 "어르신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학교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며



"문화학교가 함께 모여 글을 배우며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리면서 배움에 대한 걸증을 풀고 쉼이 쌓인 외로움을 달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교장과 교감, 학생주임 등을 마을 주

민들 중에서 선출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 중에서 반장도 뽑고 주변도 운영하면서 수업준비부터 수업 전 후 인사하기, 책상정리, 교실청소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어르신들이 진짜 학교에 다니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경찰청 전화상담부  
 063-430-2951



# 사진으로 만나는 겨울왕국 무주

### 적상면 양수발전소 홍보관에서 사진전 열려

'아름다운 무주, 겨울풍경 사진전'이 1일 무주군 적상면 양수발전소 홍보관에서 시작했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이 덕유산과 적상산, 무주호, 구천동 계곡 등에서 찍은 겨울풍경 3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이운승 회장은 "무주는 겨울왕국이라 불릴 만큼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라며 "무주의 겨울이 선사하는 매력을 사진으로 만나보고 홍보관을 비롯해 적상산과 머루와인동굴 등 주변 명소들도 꼭 한 번 둘러보시라"고 전했다.

'아름다운 무주, 겨울풍경 사진전'이 개최되는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은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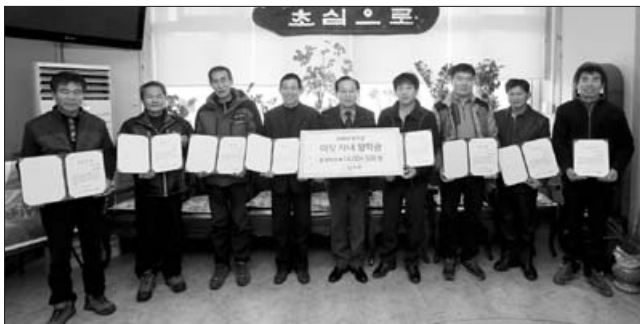
있어 사계절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최근 홍보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전력홍보 부스와 멀티비전, 동영상관 등을 새롭게 설치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력발전소의 역할과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등을 알려주는 동시에 지역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등 무주를 대표하는 홍보관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편, 무주양수발전소가 위치한 적상산에는 수력발전소를 위한 전망대(저수조)를 비롯해 천일·송대폭포, 장도·장군바위, 안렴대 등의 자연명소와 적상산성,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이 자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수여

장수군은 1일 군수실에서 이장협의 회회(회장 유영철)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평소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의

지역 심사기준에 의거해 선발된 이장자녀 8명(대학생)에게 총 1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자리에서 최용득 군수는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자녀들이 더욱 학업에 열중하고 실력을 배양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완주 CEO 경제포럼 개최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7차 완주 CEO 경제 포럼'이 1일 완주가족문화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역내 기업체 CEO,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포럼은 2017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이에 대비하는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특강 강사로 나선 현대경제연구소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세계 경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진단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 역시 경기 회복에 무게중심을 둔 사업 전략을 마련하되, 경제위기를 대비한 비상 대응책도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간 디커플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영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한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 강화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핵심"이라며 2017년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하게 되면 준 자녀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생벌제"며 "후진적인 점대문화와 지역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운영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방역현장 점검

이항로 진안군수는 1일 가죽방역 거점 소독장소를 방문해 현장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H5N6형으로 중국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병원이상 강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보고되고 있어 더욱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10월부터 AI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약 2,000L를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고,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제를 통한 농가 예찰도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축산차량을 통한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진안읍, 성수면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 2개소를 설치했으며, 무진장축협 공조를 통한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강화, 생식화 6,000kg 공급 등 AI 유입방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경찰, 직원 대상 무도 훈련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사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무도훈련을 진행했다.

무도훈련은 경찰관들의 기초체력 단련과 현장 대응능력을 위해 매월 2회 실시되는 것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도훈련을 실시했다. 무도훈련 교육관으로는 교통관리계 오승용 경위와 정보경비계 정대현 경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진행된 훈련에서는 준비운동에 이어 경찰체포술과 진압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고출동 시 현장상황을 가정한 체포술 훈련을 진행했으며, 범인검거 및 제압과 안전한 체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장수=고판호 기자